완주 생강, 세계농업유산 등재 '첫 발'

군, 농업유산보전관리위 위촉
기록정비 · 홍보관 건립 등 추진

완주군이 국가농업유산을 넘어 완주생강 전통농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지난 24일 완주군은 완주생강의 보전 및 가치 확산을 위해 농업유산보전관리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

위원회는 지역 내 농업유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행정, 학계, 주민협의체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식 이후에는 완주군이 지닌 농업유산적 가치론을 시작으로 완주생강의 역사와 미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준비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가졌다.

농업유산보전관리위원회는 향후 농업유산의 기본계획 수립, 핵심 및 주변지구 지정, 사업발굴 및 재원확보, 세계농업유산 등재 사항 등에 대한 심의 · 의결을 수행하고 농업유산의 장기적인 발전방안과 완주생강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완주군은 농업유산 지정 이후 조례제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농업유산 자원화 등 제도적 관리 기반을 갖췄다.

이에 더 나아가 완주생강이 지닌 농업유산의 활용도와 가치 증진을 위해 농업유산 아카이빙(기록자원정비), 홍보 · 체험관 건립(거점조성), 온돌식 생강굴 관리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생강이 농업과 산업의 융합콘텐츠가 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명품 완주생강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농업유산보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완주군의 농업유산 정책이 한 단계 더 성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완주=임연선기자

장수 계북면 교육발전협 출범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센터장 이정영)는 24일 계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계북면 교육발전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훈식 군수, 장정복 군의장, 이정관 계북면 교육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해 11명의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이 참석해, 위촉장 수여와 함께 협의회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향후 일정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관 협의회장은 "여러 위원들의 지혜와 의견을 모아서 계북면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기존 관 · 학으로 이뤄지던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민 · 관 · 학이 함께 협력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계북면 교육발전협의회 출범을 축하하며 거듭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

'진안고원몰' 20% 할인 행사

진안군 직영 온라인쇼핑몰 진안고원몰이 오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가정의 달 맞이 전 품목 2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할인은 진안고원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및 자사몰에서 구매 후 결제 시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쿠폰은 스마트스토어 이용 시 상품 클릭 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자사몰 이용 시 홈페이지 하단 '이달의 쿠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5월 2일 15시에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 홍삼 파우치 제품을 '1+1' 할인 프로모션으로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남수 농축산유통과장은 "선물용 홍삼제품부터 각종 먹거리 등 다양한 제품들을 진안고원몰에서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라며 "우수한 진안 홍삼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

무주군,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무주군이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 내 등산로와 임도 등지에서의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봄철 산나물을 비롯한 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하면서 산림내 불법 행위와 산불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희귀식물 서식지와 산나물 집단 생육지 주변 불법 채취행위 등을 살핀다.

이를 위해 군은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반과 산불감시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재 관내 산림 인접지 등에서 사전 계도와 단속을 펼치고 있다.

/무주=김현준기자

우석대 대학본부 건물에 복합문화공간과 전망 공간을 갖춘 '완주 · 우석 전망대 W-SKY23' 개관식이 열렸다.

'만경강이 한눈에' 완주 랜드마크 W-SKY23 개관

우석대 본관 23층 · 옥상에
복합문화공간 · 전망대 조성

완주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는 '완주 · 우석 전망대 W-SKY 23'이 공식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25일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3층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박노준 우석대 총장, 이경애 완주군의회 부의장,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김효진 완주경찰서장, 김난희 완주교육청교육장 등 지역 유관기관 대표 및 관계자 등 100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완주군은 군비 7억 원을 투입해 대한민국 대학본부 건물로는 최고층을 자랑하는 삼례읍 우석대학교 대학본부 23층에 복합문화공간을, 옥상에는 전망 공간을 갖춘 전망대를 조성했다.

전망대에서는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만경강 유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W-SKY23 전망대가 방문객 3,000만 유치를 선도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노준 총장은 "W-SKY 23이 '사람들의 발길에 문턱이 다 닳는다'는 호한위천(戶限爲穿)의 사자성어처럼 전국에서 인파의 물결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임연선기자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이용자 본인부담금 90% 지원
돌보미 처우수당 30만원 지급

무주군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이용자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고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수당 30만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1:1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시설 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이다.

무주군가족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16명이 평일 출퇴근 시간을 비롯한 이용자(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들이 원하는 시간에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무주군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063-322-7897)으로 하면 된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이은주 과장은 "몸도 맘도 건강한 아이를 양육하려는 노력, 맞벌이 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줄이려는 노력, 그리고 아이돌보미들의 안정적인 처우 보장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 모든 것들이 뒷받침돼 무주가 지방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넘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가족센터에서는 정기 집담회를 통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주요 사항 안내 및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있으며, 정서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이돌보미들이 돌봄 현장에서 겪는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김현준기자

최경천 장수소방서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점검

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25일 장수읍 소재 LH임대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화재예방과 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현장지도점검 및 안전관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봄철 건설현장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제거하고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자 추진했다.

간담회 주요내용은 ▲공사장 내 화재위험요인 사전제거 안전점검 ▲임시소방시설 안전관리 지도 ▲관계자 화재예방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최경천 장수소방서장이 25일 장수읍 소재 LH임대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화재예방과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최경천 소방서장은 "공사현장 부주의는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수=엄정규기자

진안군의회, 2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유도해야"

동창옥 의원, 혜택 강화 주장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원(나 선거구 · 사진)이 대표발의한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의원은 "면허 반납에 따른 금전적 보상 못지 않게 안전한 운전 문화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토대로 이번 개정안에는 △교통안전시설 정비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체험 등 지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추진 등 안전운전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동 의원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향후 다양한 혜택발굴 및 정책 개발과 같은 내실있는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진안=양대진기자

"공공기관 위탁사무 투명성 강화 기대"

손동규 의원, 규정 기준 마련

진안군의회 손동규 의원(가 선거구 · 사진)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90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손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사무의 기준을 마련하고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진안군 공공기관 위탁 · 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군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 및 대행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손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근거 마련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의회 동의를 통해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장수군 관내 7개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친화일촌기업 재협약을 맺었다.

장수군, 경단녀 구직 걱정 던다

여성새일센터 - 관내 7개 기업
3년간 일촌기업 재협약 체결

장수군은 지난 23일 군청 회의실에서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원장 전정희)와 관내 7개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여성일자리 창출 협력 회의에는 모두 15개 기업 · 기관들이 참여했으며, 7개 기업 · 기관(농업회사법인(주)찬누리비엔에프, 장수레저(주), ㈜참그린푸드시스템, 장수군노인복지관, 청정장수오미자영농조합법인, (유)이석, 더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는 향후 3년간 여성친화일촌기업 재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 · 기관은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과 여성 인력의 적극 채용, 경력 단절 여성들의 고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장수군새일센터를 통해 여성 인력 지원은 물론 새일여성 인턴 지원, 직장문화개선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게 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직원들이 기업에서 적용 가능한 일 · 생활 균형 지원제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등 기업맞춤형 정부지원제도 활용방안 등을 안내했다.

전정희 원장은 "장수군 관내 구직희망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맞춤형 우수인력 채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일센터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양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장수=엄정규기자

유희태 완주군수, 주민참여 예산 편성 목표액 초과 달성

주민우선, 현장중심을 군정운영 원칙으로 세우고 있는 유희태 완주군수가 주민참여예산을 대폭 확대해 주민들의 행정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있다.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유 군수는 예산 규모를 2022년 60억 원에서 올해는 73억 6,000만 원으로 22.7% 대폭 증액했다. 2025년도에는 이보다 늘려 83억 6,000만 원 규모를 공모하고 있다.

특히, 공약 목표액인 62억 5,000만 원을 이미 초과 달성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군정에 담아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며 "군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임연선기자